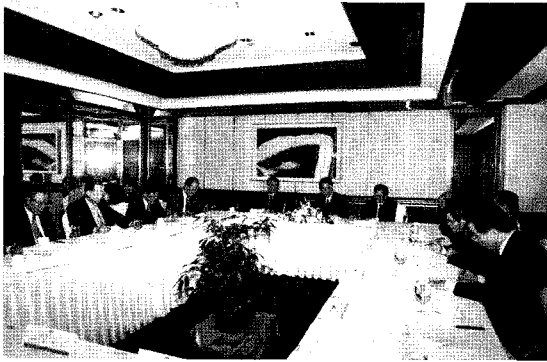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 가격 자율조정방안 결의



▲ 이사회 모습

협회는 지난 10월 9일(목) 오전 9시에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임원사가 참여하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걱정한 분양가격 책정을 위한 자율조정방안 시행을 결의한 후, 이날 오전 11시에 회장단과 운영홍보위원장단이 건교부 기자실을 방문하여 주택업계 스스로 자율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가격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결의내용을 발표하였다.

자율조정 시행을 위하여 협회내에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키로 하고, 시행시기는 2003년 서울시 제11차 동시분양 분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시행방안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우리협회 소속 회원사가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으로 분양가격이 인근의 기존주택 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제4차 주택포럼」 개최

한국주택협회(회장 이준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문경), 주택산업연구원(원장 고철), 대한주택보증(사장 권오창)은 지난 10월 9일(목) 오전 7시 30분에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을 초청 제4차 주택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 최 장관은 정부의 집값안정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대출비용을 높이는 방안과 집을 사도 수익이 별로 없다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주택분양가 원가 내역 공개 의무화 반대’ 및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중, 1:1 재건축의 경우 중·소형 의무건설 비율 적용 제외’ 등을 건의하였다.



▲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이 강연하고 있는 모습